

개혁주의 성경관으로 본 정신분석적 성경해석 비판

- 프랑소와즈 돌토를 중심으로 -

문 용 식
(기독교문학/문화)

1. 들어가는 말
2.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의 저자, 본문, 독자와 그에 대한 개혁주의 성경관에 의한 비판
 - 2.1. 저자에 대한 비평
 - 2.2. 본문에 대한 비평
 - 2.3. 독자 반응 비평
3.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에 대한 개혁주의 평가
 - 3.1.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 3.2. 꿈의 해석
 - 3.3. 억압과 억압된 것의 되돌아옴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근대 이후 현대 사상사에 큰 반향을 몰고 온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신분석학의 재발견이다. 정신분석학은 1896년 프로이트에 의해 공식 명칭을 얻은 후 한 세기를 거치면서 그 영역을 크게 확장하였다. 이제 정신분석학은 문학, 철학, 기호학, 문화학, 인류학, 심리학, 역사학, 정치학, 철학, 사회학 등 모든 학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경 해석과 설교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다. 무신론적 배경에서 탄생한 정신분석학으로 성경을 해석한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은 자유주의, 해방신학, 과정신학, 탈식민주의 등과 더불어 성경의 영감성과 무오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성경의 영감성과 무오성은 개혁신주의 성경 해석학의 신학적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해석학적 노력에도 영감론을 희생시키는 전제와 이론, 방법, 과정이 연구 결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거부될 수밖에 없다.¹⁾

오늘날 성경무오에 대한 도전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이다.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자들은 계시 그 자체로서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다. 따라서 정신분석 석의는 개혁신주의 성경관과 다른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며 본문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특히 이들은 자연주의적인 가정들, 즉 가정 환경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전제 아래 성과 공격성을 행동의 동기로 강조하여 성경 해석을 시도한다.²⁾ 이러한 성경 해석은 역사 비평 방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게 하는 것으로,³⁾ 개혁 신학의 신조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적인 권위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⁴⁾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만다. 때문에 우리는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본고의 목적은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이 점차 주목을 끌고 있는 시점에⁵⁾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의 주 원리를 개혁신주의 성경관에 비추어 비판해 보고, 다음으로 정신분석적 틀로 성경을 해석한 것을 개혁신주의 성경관으로 비판해 보고자 한다.

1) 이에 대해서는 김상훈, <개혁신주의 해석학을 세우기 위한 영감 해석의 제안>, 《신학지남》 통권 제 278호, 2004년 봄호, pp. 243-258 참조.

2) S. L. Jones & R. E.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Downers Grove: IVP, 1991), p. 75.

3) G. Theissen, *Psychological Aspects of Pauline Theology*, trans J. P. Calvin (Minneapolis: Fortress, 1987), p. 1.

4) G.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Philadelphia, P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4), p. 5.

5) 이에 대해서는 Brayton Polka, *Depth Psychology, Interpretation, and the Bible*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Montreal & Kingston & London · Ithaca, 2001)를 참조할 것.

2. 정신분석적 성경해석의 저자, 본문, 독자와 그에 대한 개혁주의 성경관에 의한 비판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은 성경저자와 성경 본문, 독자를 모두 문제 삼는 새로운 유형의 해석방법이다. 이는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의 저자, 본문, 독자를 개혁주의 성경관으로 비판해 보고자 한다.

2.1. 저자에 대한 비평

성경 해석에 있어 정신분석적 비평의 첫 번째 차원은 성경 저자에 대한 정신 분석 비평이다. 정신분석이론으로 성경을 해석한 Rashkow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신을 “문학적 대표” 또는 “아버지 이미지의 투사”로 본다. Rashkow는 “문학적 등장인물로서의 하나님은(...) 인정 많은 아버지이면서(...) 복종을 요구하는 독재자”⁶⁾라고 주장한다. Rashkow처럼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을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문학적 등장인물로 보고 성경을 해석할 경우, 모세의 오경은 하나의 소설이 된다. 모세 오경을 소설로 읽으면, 오경의 모든 것이 역사적 실체를 보도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며,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소설 속의 인물일 뿐이다. 즉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고 책에 나오는 하나의 등장인물”에 불과하며, “하나님은, 실제 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지 만들어진 신일 뿐이며 하나의 신화가 된다.” 이처럼 모세 오경의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이라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도 만들어진 인물일 뿐이며, “그들은 종이 위에 그려진 인물일 뿐이다.”⁷⁾ 이러한 정신분석적 성경 비평은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부인하고 영감받은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도 부정한다. 이들은 성경을 신학적 세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며, 그 역사성마저 부인한다. 따라서 이들의 성경해석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6) Ilona, Rashkow, *Taboo or not Taboo*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0) p. 46.

7) David J. A. Clines, 김병하 외 역, 《포스트모더니즘과 이데올로기 성서비평》, 한들출판사, 2000, p. 247.

과 “성경”을 절대적으로 동일시⁸⁾하는 개혁신주의 성경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또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신의 성격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들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신에 대해 프로이드의 개념을 사용하여, 신은 욕구와 금지 사이에 간혀 있는 바, 아버지 신은 이루지 못한 억눌린 욕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함으로써 자신이 연루된 것을 부인한다고 말한다. 아버지 신은 자신을 아담에게 투사하여 딸인 이브를 유혹하고도 딸을 유혹한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뱀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⁹⁾ 또 예수님을 정신 분석하여 예수께서 위에서 왔다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왔다는 것을 뜻하며, 그가 행한 이적은 무의식을 드러내는 표적¹⁰⁾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가정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치료자로 국한시켜 보기도 한다.¹¹⁾ 이와 같이 이들은 성경의 원저자를 투사하여 심리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 유신론적 신앙을 출발점으로 삼는 개혁신주의 성경 해석 방법¹²⁾과 성경 해석의 원리에 완전히 벗어난다.¹³⁾ 이상에서 보듯, 이들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vere deus)과 참 사람(vere homo)이 되심을 부인한다. 이러한 성경 해석은 마땅히 배격해야 한다.

2.2. 본문에 대한 비평

성경 해석에 있어 정신분석적 비평의 두 번째 차원은 성경 본문에 대한 정신분석 비평이다. 정신분석 이론으로 성경을 해석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

8)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9) Ilona. Rashkow, 앞의 책, p. 72.

10) M. W. Newheart, “Johannine Symbolism”, *Jung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ed. D. L. Millr (New York: Continuum, 1995), p. 83.

11) 프랑소와즈 돌토a, 김성민 역, 《인간의 욕망과 기독교 복음》,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p. 97.

12) 김정우, <21세기 총신 구약학의 정체성과 통전적 융합을 위한 모색>, 《신학지남》 통권 제 295호, 2008년 여름호, p. 9.

13) L. Berkhof,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4)에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예수님과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를 치료자와 환자 간의 관계망에서 유비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이다.¹⁴⁾ 정신분석 성경 해석자들이 성경을 종교적 환상을 구성하는 문학 장르로 보고 프로이트의 거세라는 개념을 통해 심지어 신적 행위까지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외상 속에서 해석한다. 예컨대 R. Scroggs는 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데¹⁵⁾, 이것은 성경의 본문을 해석할 때 정신 병리학적 가정들 위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과처럼 성경 본문에서 정신 병리적인 것을 찾는 것은 축소 환원주의적(reductionistic)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¹⁶⁾

다음으로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자들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을 “하나의 문화적이고 인위적인 산물로 간주하고”¹⁷⁾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성경을 믿음의 공동체와는 무관한 학문의 전유물로 보고 세계의 많은 원형 신화들과 비교하여 성경을 해석한다. 예컨대 Rashkow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해석하면서 고고학적 발굴, 유대문헌, 근동 지방의 다른 신들과 상호텍스트성을 시도하여 분석한 후, 아버지-하나님 이전에 어머니-여신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¹⁸⁾ 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를 읽기 위한 하나의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는 것은 남근 중심적 비평주의의 권위주의적 특성”이며, 성경의 내용들이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적 두려움과 욕망을 나타내는(...) 기록들이며, 또한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가부장제의 (...) 기록물”¹⁹⁾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의 기록을 재서사화(re-narration)하기도 한다.

14)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와 정신분석의 역사학>, 《대구사학》 제 74집, 2004, p. 376.

15) R. Scroggs, “Psychology as a Tool to Interpret the Text”, *Christian Century* (March 24, 1982), p. 335.

16) 오우성, <심리학적 신약 해석에 대한 비판적 개관>, 《신약논단》 제8권 2001, p. 151.

17) J. Cheryl Exum, 앞의 책, p. 20.

18) Ilona. Rashkow, 앞의 책, pp. 46-60.

19) R. Scroggs, 앞의 논문, p. 21.

정신분석학은 의심의 해석학이다. 표층구조에 드러난(...) 그것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그것의 심층 구조적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이 학문의 특징이다. 정신분석학은 명시적 텍스트 속에 감추어진, 그러나 흔적을 통해 자신을 암시적으로 현현하는 억압된 텍스트를 의식화하려 한다.²⁰⁾

위의 인용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흔적을 통해 암시적으로 현현하는 억압된 텍스트를 의식화하려’는 구절이다. 이것은 서사의 문법에서 벗어난 텍스트의 ‘탈문자 현상’ (lacunary phenomena)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프랑소와즈 돌토의 경우 성경 본문의 단어를 유추의 원리를 사용하여 본문의 내용을 변형시킨다.²¹⁾ 그녀의 이 같은 성경 해석은 해석의 대상이 되는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개혁신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며, 성경의 무오성과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혁신주의 성경관에 어긋난 것이다. 성경적 개혁신주의 해석자들은 저자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본문 중심으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본문 해석에 대한 노력을 경주한다.²²⁾

2.3. 독자 반응 비평

성경 해석에 있어 정신분석적 비평의 세 번째 차원은 독자들의 목소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자들은 독자반응 비평을 선호하여 본문의 의미를 창조하고 결정하는 위치로까지 나아가 “개혁신주의 신학이 말하는 ‘오직 성경’ (sola scriptura)의 방법론인 계시라는(...) 성경의 해석 범주 (criterion)”²³⁾에 도전한다. 독자반응 비평이 성경 해석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볼 수도 있지²⁴⁾만 본문을 기록한 원저자의 역할을 소홀히 대할 뿐

20) 박찬부a, 《기호, 주체, 욕망》, 창비, 2008, p. 221.

21) 프랑소와즈 돌토a, 앞의 책, pp. 95-100.

22) 김상훈, <영감된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성경과 개혁신주의 해석학적 과제>, 《신학지남》 2002년 여름호, 통권 제 271호, pp. 128-129.

23) 강웅산, <개혁신주의 교의신학의 세 방향: 성경신학적 조직신학의 재인식>, 《신학지남》 통권 제295호, 2008년 · 여름호, p. 46.

만 아니라 독자의 불완전한 지식에서 비롯된 해석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텍스트가 침묵하고 있는 것을 밝혀낼 수 있다²⁵⁾는 이들의 주장은 프로이트의 말처럼 텍스트를 마치 꿈처럼, 확대 해석(over-interpretation)할 수 있다는 해석학적 전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Exum은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익명의 여성에게 이름을 부여한다. Exum이 이름을 부여한 그 여인은 레위인의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아내로 집단 강간을 당한 바 있다. Exum은 성경에서 그녀에 대해 익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독자들에게 그 여성을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지닌 한 개인으로서 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며, “그녀에게 이름을 부여하여(...) 텍스트의 전략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²⁶⁾ 그녀에게 “밋세바(Bath-sheba : 명세의 딸, 혹은 일곱의 딸이라는 의미)에 대한 유비로서, 밋세버(Bath-sheber : 파괴의 딸)”라고 명명한다.

히브리 동사 shabar는 “파괴하다” 혹은 “조각을 내다”라는 뜻을 지닌다. 명사형인 sheber는, 도자기를 조각낼 때(사30:14)처럼 ‘파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수족을 잘라 낼 때’(레 21:19, 레 24:20)처럼 ‘분쇄’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shabar는 분노 혹은 영혼의 분열을 지칭할 수도 있다. 나는 사사기 19장의 여성을 위한 이름으로 밋세버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기브아의 남자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시체를 조각낸 일을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위에서 보듯, Exum은 밋세버라는 이름을 부여한 후 텍스트를 확대 해석한다. Exum은 확대 해석하는 이유를 “남성 중심적 내레이터가 파괴한 그녀의 주체적 입장을 복원시키려는 의도”에서 “텍스트의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

24)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엠마오, 1991, p. 187.

25) Calvin,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John T, McNeill eds, and Ford Lewis Battles tran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559), 1. 13,21.

26) J. Cheryl Exum,, 앞의 책, p. 229.

27) J. Cheryl Exum,, 위의 책, p. 230.

기를 분쇄하고자 하는”²⁸⁾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렇듯 Exum은 성경 본문과 저자들의 저술 배경을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키고 있는 데, 이것은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을 간과한 것이 된다. Exum의 이데올로기적인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은 성경 본문은 인간 저자만의 특성이 아닌 하나님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오류에서 나온 것이다. 개혁신의 성경 해석은 성경의 저자들이 당대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기존 사회 구조의 왜곡된 틀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독교 복음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²⁹⁾

또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자들은 모든 텍스트에 하위 텍스트(subtexts)가 존재한다고 보고, 성경 본문 배후에 있는 하위 텍스트에 관심을 기울인다.³⁰⁾ 예컨대 Exum은 사사기 19장을 해석하면서 남자들이 레위인을 요구하면서 레위인이 아닌 한 여인을 취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위 텍스트를 설정한 후, 성경 저자가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 즉 여성들에게 성적인 자율성을 추구하면 그 결과는 고통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고 답한다. Rashkow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해석하면서 “엄마는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위 텍스트를 설정한 후, 성경이 여성의 성을 그토록 억누르고 있는 이유를 탐구한다. 성경에 모성을 칭송하는 곳이 나오지만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의 생산력이 남신의 권위와 라이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한 증거로 신이 남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면서도, 여신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³¹⁾ 이들이 도출한 결과를 보면, 해석자가 특정한 관심사나 목적을 갖고서 성경을 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니 이들은 성경의 권위와 저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해석학적 흐름에 반기를 들고, 저자의

28) J. Cheryl Exum., 위의 책, p. 230.

29) 루이 벌코프, 앞의 책, pp. 139-153.

30) 하위 텍스트란 “저자가 참아 왔거나, 억눌러 왔거나, 잊어 버렸거나, 무시했거나, 우리에게 감추어 왔던 것으로, 심지어는 우리에게 숨겨져 왔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David, J. A. Clines, 앞의 책, p. 101 참조.

31) Ilona. Rashkow, 앞의 책, pp. 46-60.

의도란 자신의 의도를 은폐하려고 하는 기만이라고 혹평하며 확대 해석한다.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도 독자에 관심을 기울인다.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도 “모든 개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³²⁾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자들은 정신분석 성경 해석자들과 달리 독자의 위치에 대해 분명한 규범을 제시한다.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은 효과적인 해석을 위해 독자의 위치를 강조하지만 그들이 해석의 중심을 차지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독자가 의미를 창출할 때 해석의 횡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긴다.³³⁾ 독자가 의지할 규범이란, 1) ‘영감 해석’ (inspirational reading)을 성경 해석의 근본적인 토대로 여겨야 한다. 2) 모든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시켜야 한다. 3) 해석의 최종 권위는 성경 그 자체이다라는 규범에 의지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³⁴⁾ 것이다.

성경저자와 성경본문, 독자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을 정리해 보면,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은 등장인물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정신분석의 과정³⁵⁾에서 환경을 재구성하고 그 인물의 무의식적 기저까지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텍스트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의미 있게 해석하기 위해 “인물의 가족사와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환경을 재구성하고”, “표층의미만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의 생산에 영향을 주고 동기를 부여한 무의식적 기저의 흐름까지도 포착하고자” 힘쓴다. 특히 정신분석 성경 비평가들은 본문의 모호성 때문에 기존의 해석에 대한 대안이 없는 본문을 선호하며, “텍스트의 애매한 요소들을 종종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소한 요소들을 중요한 통찰의 근원”으로 삼아 억압된 것의 귀환을³⁶⁾ 밝히는 것을 해석의 귀결점으로 삼고 있다.

32) 루이 벌코프, 윤종호·송중섭 역, 《성경 해석학》, 개혁주의신행협회, 2002, p. 88.

33) 류용렬, <개혁주의 강해 설교가 나아가야 할 다섯 가지 방향>, 《신학지남》 통권 제 284호, 2005년 가을 호, p. 216.

34) 박용형, 앞의 책, p. 22.

35) Brooks, Peter, *Psychoanalysis and Storytelling* (Oxford: Basil Blackwell, 1994), pp. 36-44.

칼빈은 이들과 달리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종류의 사색을 거부하였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로부터 그것의 의미를 감추셨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자들이 성경무오의 권위에 도전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해석에서 죄의 문제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의 영향으로 인간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아직도 인간의 의식적인 정신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³⁷⁾는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고 (...)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의 주 원리는 개혁주의 성경 해석 및 성경관에서 벗어난다.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제일 원리는 “계시의존 신앙”이고³⁸⁾ 해석의 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읽는데서 출발하며, 개혁주의 성경관은 성경의 무오와 성령의 영감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3.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에 대한 개혁주의 평가

지금까지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의 저자, 본문, 독자를 개혁주의 성경관의 관점에서 비판해 보았다. 본 절에서는 정신분석 이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틀,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꿈의 해석, 억압과 억압된 것의 되돌아옴으로 성경을 해석했을 때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계시의 의미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³⁹⁾ 성경 해석의 고유한 목적을 이룰

36) Dorothy F. Zelig, *Psychoanalysis and the Bible*(Bloch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74), pp. x x - x xii.

37) 루이 벌코프, 앞의 책, p. 10.

38) 박윤선, 〈성경해석 방법론〉, 《신학지남》 3월호, 1966, p. 20.

39) 김정우, 앞의 논문, p. 18.

수 있는가를 개혁주의 성경관에 비추어 비판하고자 한다.

3.1.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본 절에서는 프랑소와즈 돌토가 복음서에 나오는 세 편의 부활 기사, 즉 ‘죽었다가 살아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기사’ (눅 7: 11-16)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기사’ (막 5: 21-43),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 기사’ (요 1-44)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읽은 것을 개혁주의 성경관에 비추어 비판해보고자 한다. 분석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신분석에서 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정신분석학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핵심이론으로 ‘가족 로맨스’(family romance)의 맥락에서 동성의 부모를 배척하고 이성의 부모를 끌어안으려는 인간의 보편적 심성을 말한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 이전의 어린아이에게는 뚜렷한 자의식도 없고 타자에 대한 인식도 없다고 말한다. 즉 이 단계는 자아와 타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미분화된 나르시시즘적 이자 관계, 아이와 어머니의 공생애적 결합관계로 특징 지워진다. 프로이트는 여기에 제 삼자인 아버지가 출현함으로써 오이디푸스 단계에 이르면 이자관계가 삼각구도로 재편되고, 그 재편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을 지닌 주체가 탄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주체의 성적 정체성과 인격 형성의 중요한 계기라고 보았다. 그런데 라캉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문제를 언어 기호학적으로 재해석하여 ‘아버지의 이름’의 메타포”를 주체 생성의 필수과정으로 파악한다. 만약 한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로 일대 전환되는 과정에 실패하면, 즉 부성적 메타포의 폐제(foreclosure)는 곧 정신병으로 연결되어 인간 조건의 기본적 박탈을”⁴⁰⁾ 불러온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남녀의 차이가 부모의 성과 연관된다고 보지만, 라캉은 아이가 욕망하는 것은 무조건 어머니이며 아버지는 그것을 금지하는 자로 등장한다고 하여 아버지 이름의 메타포를 강조한다. 라캉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여한 주체가 상징

40) 박찬부^a, 앞의 책, p. 140.

계에 도달한 후 욕망의 문제와 대결하는데, 이 때에도 상실과 결핍이 나타나 주체의 위기가 나타난다고 본다. 라캉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욕망과 관련지어 후기 구조주의의 사유틀을 제시하는 동시에 부정신학의 문을 연다.⁴¹⁾

먼저, 프랑소와즈 돌토가 프로이트와 라캉의 오이디푸스 개념을 결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기사' (눅 7: 11-16)를 해석한 것을 살펴보자. 그녀는 프로이트에게서 성차 개념을, 라캉에게서 아버지의 이름의 메타포와 관련된 욕망 개념을 끌어와서 "우리의 욕망과 그 욕망에 따라야 하는 율법"과⁴²⁾ 관계 속에서 본문을 해석한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젊은이여,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거라!"(눅 7: 14)라는 말씀을 욕망에 따라야 하는 법의 관계와 연관시킨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욕망이 막힌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에 있던 소년에게 아버지의 법을 부여함으로 욕망이 열린 오이디푸스 단계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소년은 병이 들어서 그의 의식을 혼미하게 하는 열풍 속에서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년은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아주 다정하게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그에게 새롭게 생겨난 이 욕망에 어울리는 이 부드럽고 강력한 남자의 음성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때 이 남자의 음성은 그 소년의 귓속에서 너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라는 후견인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일깨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년은 다시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 옆에서 자기를 깨운 것이 누구인지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때 이 소년의 어머니가 너무도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의 손을 잡아당겨 끌어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젊은이로 다시 태어난 이 소년이 자다가 깨어난 듯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눈을 부릅뜨고 있는 요람 위에 팔을 걸치고 있는 예수님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년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

41) 이에 대해서는 박찬부b, 《라캉 : 재현과 그 불만》, 문학과 지성사, 2007, pp. 63-65.

42) 프랑소와즈 돌토a, 앞의 책, p. 85.

도록 부른 이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⁴³⁾

위의 인용문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르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촉발된 아주 성결한 상상력⁴⁴⁾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⁴⁵⁾ 그러나 유추의 원리를 사용하여 본문의 내용을 변형시킨 것은 잘못이다.

프랑소와즈 돌토는 본문의 내용을 변형시키고 있는 바, 이것은 개혁주의의 성경관인 축자 영감설에 대한 도전이다. 그녀는 유추의 원리를 사용하여 “죽은 자”(a dead man)(눅 7:12)를 ‘의식을 혼미하게 하는 열꽃 속에서’ 관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변형시킨다. 이렇게 성경의 단어를 변형시킨 것은 개혁주의 성경관의 축자 영감설에 대한 도전이다. 축자 영감설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모든 세부적인 부분들의 집합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한 단어나 구도 어떤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저자에 의해 주의 깊게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⁴⁶⁾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고(베후 1:21), 칼빈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언했다.⁴⁷⁾ 그녀처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성경 속에 오류나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성경의 무오성에 도전장을 내는 것이 된다.

또 프랑소와즈 돌토는 칼빈의 성경해석처럼 성경을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보지 않고⁴⁸⁾, 축소 환원주의적 심리주의로 해석하고 있다. 그녀가 범하고 있는 큰 오류는 성경의 본문을 욕망이라는 관점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점이다. 그녀는 욕망을 수직·수평축과 연관지어 우리가 “욕망의 열쇠”이며

43) 프랑소와즈 돌토, 위의 책, p. 97.

44) 조신권, <기독교 문학: 그 성격, 작가 및 상상력>, 《기독교와 어문학》, 제5권 1호, 2008, p. 28.

45) 심상법, <서사적 설교와 마가복음>, 《신학지남》 통권 제258호, 1999. 봄호, p. 276.

46) 김상훈, 앞의 논문, p. 251.

47) *Inst*, IV, 8, 9,

48) 김정우, 앞의 논문, p. 34.

“욕망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수직적인 축으로 연결될 때, 부분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수평축도 전체적인 욕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제아래⁴⁹⁾ 본문을 해석한다. 그녀의 이러한 성경 해석은 복음서의 본문을 욕망이라는 코드로만 읽기를 시도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축소 환원주의적인 심리학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녀의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의 큰 오류는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의 역할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욕망의 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구원의 선포인가? 그녀는 본문을 예수님께서 부분적 욕망에 잠겨 있는 인물에게 전체적인 욕망을 깨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본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적 활동의 실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녀는 욕망을 구원의 사역 위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그녀의 해석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으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그녀의 해석은 성경의 본문을 임상 경험에 근거한 심리 역동 방식에 적용한 것으로 개혁주의 성경관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자들은 본문을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권위,⁵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권능⁵¹⁾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소와즈 돌토가 얼마나 성경을 축소 환원주의적으로 읽었는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녀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기사’를 ‘부모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한 유아적인 상태라는 틀에서만 해석한다. 그녀는 그 소년이 “어머니와의 관계 속으로 퇴행”⁵²⁾되어 오이디푸스 이전의 단계인 어머니와 1차적 동일시(identification)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그 소년은 상상 속에서 어머니와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근친 상간적으로 되어”, “그 나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욕망들이 막혀” 있었다

49) 프랑소와즈 돌토b, 김성민 역, 《정신분석학의 위협 앞에 선 기독교 신앙》, 다산글방, 1999, pp. 152-153.

50) 박윤선, 《성경주석 공관복음》, 영음사, 1985, pp. 264-266.

51) 심상범, <신약신학과 총체적 복음사역>, 《신학지남》, 2005년 가을호, 통권 제 284호, p. 163.

52) 프랑소와즈 돌토a, 앞의 책, p. 102.

는⁵³⁾ 것이다. 그녀는 본문을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들어 있는 억압된 무의식을 읽어내시어 그 소년을 청년이라 부름으로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닌 문화인이 되게 하셨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그녀가 “예수께서 산 자의 주이심과 동시에 사명 권세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심”⁵⁴⁾을 축소하여 예수님을 인간의 사회, 문화를 성취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그녀의 성경 해석은 개혁주의 성경 해석과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다음, 프랑소와즈 돌토는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사’ (막 5: 21-43)도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라캉의 욕망의 개념으로 읽은 것을 살펴보자. 그녀는 먼저 프로이트의 동성의 부모를 배척하고 이성의 부모를 끌어안는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을 사용하여 아이로의 딸이 아버지와 “무의식적으로 근친 상간적인 고착”⁵⁵⁾ 관계에 있다고 전제 한 후, 라캉의 욕망 개념과 연결시켜 예수님이 딸과 아버지의 이자 관계에 개입하여 전체구도를 어머니-아이-아버지의 삼각구도로 바꾸어 준 것으로 해석한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이로의 딸에게 여성성을 회복시켜 준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여성성의 회복을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⁵⁶⁾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 그녀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욕구만 충족시켜주자 자기 스스로 아무 것도 욕망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녀를 집어삼키려고 하지 말라”고 해석한다. 그녀는 예수님이 아이로의 딸의 성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성경 해석은 축소환원주의적 해석으로 수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프랑소와즈 돌토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사’ (요 1-44)를 프로이트의 거세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해석한 것

53) 프랑소와즈 돌토a, 위의 책, p. 165.

54) 강병도, 《성경 연구 시리즈: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독교지혜사, 1987, p. 103.

55) 프랑소와즈 돌토a, 위의 책, p. 125.

56) 프랑소와즈 돌토a, 위의 책, p. 143.

을 살펴보자. 거세 콤플렉스(castration complex)란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페니스 절단의 위협이나 망상을 의미한다. 즉 거세 콤플렉스란 여아는 '페니스 선망' (penis envy)의 콤플렉스에 빠지는가 하면 남아는 자신의 페니스도 어떤 징벌이나 강압에 의해 언젠가는 거세될 수 있으리라는 '거세 공포증'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녀는 거세란 아이의 발전 단계를 구획하는 인간화된 욕망의 수련과정으로 본다.⁵⁷⁾ 구강기적 거세란 입의 충동을 언어적 행동으로 변화시켜 의사 소통의 새로운 수단을 발견한 것이며, 향문기적 거세란 아이가 놀이를 좋아하고 타자들과 관계 맺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⁵⁸⁾

프랑소와즈 돌토는 나사로가 예수님과 절대적인 힘의 환상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과 절대적인 환상 관계가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세 불안을 느껴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마르다는 일에 집착하여 끊임없이 일을 하는 향문기적 특성을 보이고,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의사소통을 발견하는 구강기적 특성을 보인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세 사람 모두 신경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⁵⁹⁾ 이와 같이 그녀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아버지의 이름이 배제된 신경증 환자로 보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들 사이의 관계에 개입하여 전이와 역전이로 치료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녀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거세를 행하셨다면 예수님이 무의식의 치료사가 된다. 이러한 그녀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한 것이며, 병을 고쳐주는 목적에만 초점을 맞춘 해석으로 수용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세 편의 부활 기사를 통해 복음의 본질과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 주려 하셨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점을 가르친 것이다.⁶⁰⁾

요컨대 프랑소와즈 돌토는 세 편의 부활 기사를 분석한 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의 메타포로 자리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녀는 아동의 정신 분

57) 미셸 앙리 르두, 표원경, 이오갑 역, 《프랑소와즈 돌토의 삶과 사상》, 숲, 2000, p. 83.

58) 미셸 앙리 르두, 위의 책, pp. 79-80.

59) 프랑소와즈 돌토a, 앞의 책, p. 157.

60) 김창훈,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 솔로몬, 2006, p. 211.

석 상담자답게 실제 삶 속에서 자녀들의 성숙이 방해받았을 때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신 상태가 혼미해져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조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존재감으로 그들을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성경을 해석한다. 그녀는 예수님을 문화적 실천으로 이끌어가고 격려하는 존재, 즉 자아이상(Ichideal)으로 본다.⁶¹⁾

프랑소와즈 돌토의 이러한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살피고자 하는 개혁신학의 성경 해석 목적에 어긋난다. 그녀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출발점으로 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억압적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욕망의 막힘을 해결할 수 있는 매개적 존재로 보고 있는 데 이것은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다. 예수님께서 세 기적을 행하신 것을 “사망에 대한 자신의 권세를 확실하게 증명하신”⁶²⁾, “예수의 절대적 권세와 능력”⁶³⁾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그녀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에서 ‘죽었다’라는 단어를 ‘잠자고 있다’로 변형시킨 것은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한 것이 된다. 우리는 세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됨을 확증해 주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역사 속에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해석해야 한다.⁶⁴⁾

3.2. 꿈의 해석

성경에 나오는 꿈을 정신분석 이론으로 해석할 경우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 프로이트가 ‘무의식은 거의 말한다’는 전제 아래, 꿈이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나 상형문자의 해독과정이며 텍스트적 메타포를 동원하고 있는”⁶⁵⁾ 것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다. 프로이트는 꿈을 해석

61) 미셸 앙리 르두, 앞의 책, p. 93.

62) 그랜트 오스본, 《적용을 도와주는 누가복음》, 성서유니온선교회, 2003, p. 297.

63) 박윤선, 앞의 책, p. 266.

64) 이한수, 〈신약의 전망에서 평가한 은사증지론〉, 《신학지남》 통권 제 295호, 2008년 여름호, p. 175에서 B. L. Blackburn, “Miracles and Miracle Stories.”, i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IVP Press, 1992, p. 558을 재인용함.

65) 박찬부b, 앞의 책, p. 24.

하면서 ‘꿈의 사고’와 ‘꿈의 작업’이란 두 단어를 중시하는데 ‘꿈의 사고’란 본능의 관념적 표상체이고, ‘꿈의 작업’이란 관념적 표상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상징적 이미지로 변형되어 명시적인 꿈으로 드러나는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프로이트는 두 단어 가운데 꿈의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본절에서는 프로이트의 꿈 해석 방법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꿈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심리학적 꿈 분석과 성경의 꿈 분석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성경의 꿈을 분석할 때 꿈을 꾸 당사자가 우리 옆에 없기 때문이다. 성경의 꿈 상황은 꿈꾼 사람과 분석가 사이의 공동 작업이라는 심리학적 꿈 분석의 기본전제와 다르다. 하지만 이것은 지엽적인 것이다. 보다 큰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의 꿈(66) 프로이트의 꿈 해석 방법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성경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앞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꿈을 프로이트의 꿈 해석의 방법으로 심리 분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꿈은 천사나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천사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꿈으로 예시하였으며, 바울은 꿈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꿈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고 복음의 전파와 관련되어 있는 바, 신약 성경의 꿈들은 사실적이며 직설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⁶⁷⁾ 예수님의 출생(눅 1: 26-38: 마 1: 18-25)에 대한 기사의 경우,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구약의 성취⁶⁸⁾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다는 사실⁶⁹⁾이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소와즈 돌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족 로망스의 관점에서 해석하여(...)마리아와 요셉이 자기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가정을 이루었다고”⁷⁰⁾라는 주장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66) 박윤선, 《창세기·출애굽기 주석》, 영음사, 1981, pp. 349-350.

67) 환건덕, 《성경 속의 꿈 해석》, 신기원사, 1986, p. 299.

68) 하워드 마샬, 강요섭 역, 《국제신학주석 루가복음》 1, 한국신학연구소, 2001, p. 79.

69) 정훈택, 《쉬운주석 마태복음》, 그리심, 2007, p. 25.

70) 프랑소와즈 돌토a 앞의 책, p. 160

에 대한 그녀의 꿈 분석은 개혁주의 성경 해석에서 벗어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녀의 꿈 해석이 개혁주의 성경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살펴보자.

주(主)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를 예고한 것과 그 일로 마리아의 남편으로 정혼한 요셉이 근심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한 것에 대해, 개혁주의 성경 해석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에 초점을 맞춘다. 즉 “천사가 전한 메시지의 권위성, 진실성, 그리고 신 계시성을 분별할 수 있는 마리아의 신앙”⁷¹⁾과 “요셉 역시 주의 사자의 현몽 권위에 복종하고 계시를 착오 없이 실행한 신앙인”⁷²⁾으로 평가한다. 반면에 프랑소와즈 돌토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수태 예고와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난 차이에 주목하여 마리아는 천사가 계시하였기 때문에 능동적이며 창조적이지만, 요셉은 꿈에 현몽하였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언급한 후, 마리아를 “언제나 어떤 사태를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지 또는 은유”로 해석한다. 그녀는 꿈 해석을 할 때도 신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심리적 역동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한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가족의 낭만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프랑소와즈 돌토의 성경 해석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야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적⁷³⁾인 꿈으로 보는 개혁주의 성경 해석에서 벗어난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의 꿈을 수동성과 능동성으로 구별하여 해석한 그녀의 관점은 그들의 꿈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⁷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한 개혁주의 성경 해석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둘째, 성경에 나타나는 꿈은 미래 지향적 성격이 강한 반면 프로이트의 꿈 해석은 미래를 표현하는데 둔감하다. 프로이트는 꿈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꿈은 원초적 억압과 관련되며, 원초적 억압은 정신계의 밑바닥에 기호적 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꿈은 무의미하지도 않고, 부조리하지도 않다.(…) 그것은 욕망의 성취라는 합법적 정신현상으로서 각성 시의 지적

71) 김홍전, 《그리스도께서 오심》, 성약, 1990, p. 110.

72) 김홍전, 위의 책, p. 193.

73) 김상훈, 《숲의 해석 마태복음》, 총신대출판부, 2007, p. 42.

74) 박윤선, 《성경주석 공관복음》, 1978, 영음사.

정신적 현상 속에 끼워 넣을 수 있다.”⁷⁵⁾ 그리고 꿈은 원초적 억압이 다른 내용으로 번역되거나 변형되어 인간의 언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꿈 해석이란 “꿈의 작업을 통해서 변형된(…) 것을 거슬러 올라가 본래의 모습을 보려는 시도”를 말한다.⁷⁶⁾ 때문에 프로이트의 꿈 해석 이론을 가지고 성경의 계시적 꿈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성경 기자의 꿈의 입장과 프로이트가 본 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 기자는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꿈의 신적 계시성을 드러내며(창세기 41장 39절, 사사기 7장 13절 이하, 다니엘 2장 28절, 47절), 그 꿈의 작용은 미래 전망적(perspective)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미래를 해석할 수 없는 프로이트의 꿈 해석이론으로 계시적 성격을 지닌 성경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⁷⁷⁾

셋째, 프로이트는 꿈을 해석하면서 응축(condensation)과 대치(displacement)라는 관점에서 꿈을 억압된 욕망의 성취와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이트의 꿈 해석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꿈을 해석할 수 없다.

Rashkow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나타난 야곱의 꿈 작업을 ‘압축’과 ‘대치’, 그리고 ‘상징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대치’란 무의식적 욕망을 다른 어떤 것으로 투사(projection)시키거나 전환시키는 꿈의 활동을 말한다. ‘응축(압축)’이란 함은 꿈 속에서 일종의 압축이 행하여진다는 것인데, 한 인물이 현실세계의 여러 인물로 겹쳐서 나타나게 된다는지, 한 인물이 여러 다른 상황에 동시에 나타나 보이는 것을 말한다. 또 ‘상징화’란 잠재 내용을 영상으로 가장하여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⁷⁸⁾ Rashkow는 “touched the socket

75) SE, 4. 앞의 책, p. 122.

76) 박찬부b, 앞의 책, p. 68.

77) 우리는 성경 기자가 성경의 꿈이 합법적인 구성요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로 간주하고 있어 꿈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레미야는 꿈을 통해 거저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경계하라(예레미야 23장 25-32)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78) 이윤희, 《정신건강과 정신분석》, 무지개사, 2006, pp. 255-256.

of Jacob's thigh”(창 32:25상)가 야곱의 꿈에 압축되었다고 주장한다. 씨름하는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것을 형 에서와의 갈등이 압축되어 나타난 것으로 본다. 그 갈등이란 첫 번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은 것, 두 번째,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산 것, 세 번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다음 Rashkow는 야곱이 꿈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창 32:25하)을 허벅지 관절(종아리 잡은 것)과 연결시켜, 그것이 엉덩이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성적인 행위가 ‘대치’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거세시키는 상징적 의미로, 형 에서와 아버지를 넘어서고자 하는 소망의 표현으로 본다. 야곱은 꿈 속에서 형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형이 자기의 다리를 절게 하였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발을 내려 자기 다리를 절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불안을 벗어나기 위한 심리기제라고 Rashkow는 해석한다. 따라서 Rashkow는 야곱의 압복 철야기도를 속죄라는 양심의 표현과 형과 아버지를 넘어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정당화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한다.⁷⁹⁾

Rashkow의 야곱의 압복 철야기도에 대한 꿈 해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도를 꿈이라고 본 것이다. 이것은 “성경 내에 기록된 모든 것을 완전한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인다”⁸⁰⁾는 개혁주의 성경관과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전제가 잘못된 해석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박윤선의 야곱의 압복 철야 기도 해석, 즉 ‘야곱의 씨름’을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강정으로, ‘환도뼈의 위골’을 야곱의 낮아짐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하는⁸¹⁾ 입장을 견지한다면, Rashkow의 입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요컨대 우리는 정신분석적 꿈 해석 방법으로 성경의 꿈을 해석할 수 없음

79) Rashkow는 정신분석학자인 라캉의 꿈 해석의 관점을 활용하여 언어적인 부분을 유추하여 꿈을 해석하고 있는데, 씨름을 할 때 옆구리(thigh)는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고, 히브리 의 풍습에서 맹세를 할 때 손을 종아리(hip or thigh)종아리 밑에 넣는 것으로 해석한다.

80) G. L. Archer, <무오성에 대한 성경 자체의 증거>, in J. M. Boice, 《성경의 무오성》, 황성철역, 생명의 말씀사, 1983, pp. 138-139.

81) 박윤선,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 영음사, 1981, pp. 333-334.

을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첫째, 해석의 전제가 다르고, 둘째, 미래를 해석할 수 없으며, 셋째, 성적인 단일의미에서만 해석하기 때문이다.

3.3. 억압과 억압된 것의 되돌아옴

‘억압(repression)과 억압된 것의 되돌아옴’(return of the repressed)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정신분석 접근은 욕망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신분석 비평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원초적 억압의 결과로 무의식이 생성되고 이 무의식은 일련의 기표로 구성된다. 그런데 무의식은 그 내용물을 의식계로 밀어 올리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억압된 것이 되돌아옴이라는 정신기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억압된 과거는 의미의 산실로서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석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 있는 그 어떤 것”⁸²⁾이다. 이 때 이것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역할은 등장 인물의 잊혀진 세월과 관련된 과거를 충실히 복원하여 과거를 원형대로 재구성(reconstruction)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재구성은 “판타지를 통해 재편된 질서 또는 해체 과정을 밝아가는 변증법적 순환구조”⁸³⁾일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기 보다는 창조하는 것으로 서사적 재구성이 된다. 이러한 서사적 재구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해석자는 저자의 의도가 심겨져 있는 본문의 참된 의미에서 벗어나 방향하지 말고 자기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John Calvin의 성경관에 벗어난다.⁸⁴⁾ 실제 프로이트의 억압과 억압된 것의 되돌아옴을 적용해서 성경을 해석한 사례를 검토해 보면 본문의 의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소와즈 돌토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까지를 프로이트의 ‘억압과 억압된 것의 되돌아옴’이란 해석의 틀에 적용하고 있다. 그녀는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살펴 볼 때 ‘억압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개념과 비슷하다”⁸⁵⁾고 말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억

82) SE 23, 앞의 책, p. 299

83) 박찬부b, 앞의 책, p. 290.

84) 안명준, 《칼빈의 성경 해석학》,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7, p. 79.

85) 프랑소와즈 돌토a, 앞의 책, p.

압으로부터의 귀환을 환기시키는 매개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예수님께서서 비탄을 토하는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억누르고, 억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억눌림 당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서 하신 모든 기적과 축제, 승리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그 충격이 너무 심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억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엠마오에서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나타나자 잊어버렸던 억압이 귀환하였다는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이러한 사건을 환각증상이나 심리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⁸⁶⁾ 있지만 그녀의 성경 해석은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 주지 않은 부분을 독단적으로 단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없었고(눅 24:16). 마가의 기록대로 주님께서서 그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갑자기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눅 24:31), 예수님께서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 24:32)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서 엠마오 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열어주셨다(눅 24:32). 그녀가 억압과 억압으로부터의 되돌아옴이라는 프로이트의 관점을 본문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또 프랑소와즈 돌토는 “예수님이 그가 살아 있을 때 했던 일에 대해서 모두 잊어버리고(...) 죽기 전에 있었던 그의 삶에 관해서 아무 것도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그의 전생애 관해서 말하면서 그에게 그 기억들을 일깨우자, 그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379)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서 살아 있을 때 했던 모든 것을 모두 잊어버렸다면, 주님께서서 말씀하시는 자신에 관한 것이 이전의 설교와 어찌 일치할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주님께서서 살아 있을 때 했던 일을 모두 잊어버렸다는 그녀의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주님은 전지전

86) 프랑소와즈 돌토a, 위의 책, p. 397.

능하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시기(요 14:10)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히 13:8) 하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 말씀을 억압과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는 정신분석 틀로 해석한 프랑소와즈 돌토의 성경 해석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이러한 성경 해석은 예수님의 전능성과 성령의 역사, 부활의 역사성 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녀는 ‘무오한 증거’ 들로 가득찬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를 지나치게 심리학적 틀에 종속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이와 같은 성경 해석은 개혁신의 성경관에 비추어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J. Cheryl Exum은 창세기에서 족장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할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세 번 반복되는 것(창세기 12장, 20장, 26장)을 성적 환상이 “억압된 잠재의식”⁸⁷⁾의 관점에서 읽는다. 그녀는 유사한 사건을 세 번 반복한 반복 욕구 충동을 무의식적 성적 판타지와 연결시키고, 성경 저자가 그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억압된 것을 되돌림으로 신경 쇠약 증후를 치료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한다. 성경에 세 번이나 반복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은 아내의 성적 가치를 다른 남자들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 충동, 즉 자기 부인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성적 환상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손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애고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자화 증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 여성에 관련된 성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난 것으로 본다.⁸⁸⁾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um은 억압과 억압된 것을 되돌아옴이라는 틀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바, 이것은 본문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⁸⁹⁾으로 보는 개혁신의 성경 해석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정신분석 이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틀,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꿈의 해석, 억압과 억압된 것의 되돌아옴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을

87) Exum, 앞의 책, p. 200.

88) Exum, 위의 책, pp. 204-207.

89) J. I.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IVP, 1996, p. 133.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계시의 의미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⁹⁰⁾ 성경 해석의 고유한 목적과 성경의 무오성과 영감성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⁹¹⁾

4. 나오는 말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의 완전 무오성과 성경의 완전 영감을 부인하는 의심의 해석학에서 출발한다. 이들의 입장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개혁주의 성경관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성경 해석의 저자, 본문, 독자 비평의 원리와 성경 해석의 틀이 “성경 66권의 신적 권위와 무오성에 대한 성경 자체의 주장”⁹²⁾과 조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의 저자, 본문, 독자 비평의 원리를 개혁주의 성경 해석 및 성경관으로 비판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을 문학적 등장인물로 보고 비평을 시도한다. 이들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프로이트의 개념을 끌어들이어 하나님을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심을 부인한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개혁주의 성경관에 대한 도전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문학 텍스트가 아니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계시이기 때문이다.⁹³⁾ 따라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신의 성격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들의 주장은 성경의 궁극적 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출발점으로 삼는 개혁주의 성경관에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90) 김정우, 앞의 논문, p. 18.

91) 줄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정신분석 주요 개념과 성경 해석 비판>, 《기독교와 어문학》 제 5권 1호, 2008에서 논의한 것을 정신분석적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고 수정한다.

92) 정규철, <성경 오류설의 철학적 배경>, 《신학지남》 2005년 가을호, 통권 제 284호, p. 329.

93) 류용렬, 앞의 논문, p. 205

둘째,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자들은 본문을 해석할 때 성경의 진리성이나 권위에 집착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성경을 재서사화한다. 저자가 사라고진 이들의 성경 해석은 성경의 진정한 저자인 성령 하나님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것이 된다.⁹⁴⁾ 이들의 성경 해석은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 말씀하셨으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류가 있을 수 없고 실제로 오류가 없다.”⁹⁵⁾라는 칼빈의 관점과 대치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또 이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신과 인물들을 정신 병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들처럼 성경 본문을 정신 병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축소 환원주의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

셋째,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자들은 프로이트의 말처럼 텍스트를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독자반응 비평을 시도한다. 그 결과 이들은 성경의 하위 텍스트에 관심을 가져 탈문자화 현상을 읽어 내거나 성경의 본문을 변형시킨다. 이들의 이러한 성경 해석은 성경의 본문은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하나의 의미를 지닌다는 개혁신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에 벗어난 것이며,⁹⁶⁾ 성경의 독자영감설에 대한 도전이고, 독자의 위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개혁신주의는 독자가 의지할 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독자가 의지할 규범이란, 1) ‘영감 해석’(inspirational reading)을 성경 해석의 근본적인 토대로 여겨야 한다. 2) 모든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시켜야 한다. 3) 해석의 최종 권위는 성경 그 자체이다.

다음, 정신분석 이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틀,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꿈의 해석, 억압과 억압된 것의 되돌아옴으로 해석한 것을 개혁신주의

94) 류용렬, 위의 논문, p. 214.

95) 손병덕, 〈John Calvin의 성경관을 기반한 Karl Barth의 계시관 비판〉, 《신학지남》 2004년 봄호, 통권 제 278호, p. 277.

96) 류용렬, 앞의 논문, p. 211에서 Hendrik Krabbendam, “Hermeneutics and Preaching” *The Preacher and Preaching: The Reviving the Art in the Twentieth Century*, ed. Samuel T. Logan, Jr(Phillipsburg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1986), p. 213을 재인용함.

성경 해석 및 성경관으로 비판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소와즈 돌토는 프로이트와 라캉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복음서에 나오는 세 편의 부활 기사를 분석하면서, 세 편 모두를 가족 로망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녀는 세 편의 본문을 신경증의 현상으로 보고, 본문에서 정신 병리적인 증후를 읽어낸다. 이러한 그녀의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로서의 본문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세 편의 본문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틀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킨 것으로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취약하다. 해석에서 있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유추의 원리를 사용하여 ‘죽은 자(눅 7:12)’를 ‘열 꽃 속에서 관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을 변형시킨 점이다. 그녀의 본문 해석은 독자적 전체 영감에 대한 도전이다.

둘째,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자들이 분석으로 대상으로 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꿈이다. 프랑소와즈 돌토와 Rashkow는 성경에 나타난 꿈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것은 성경의 꿈과 프로이트의 꿈 해석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 결과이다. 프로이트의 꿈 해석은 판타지에 기초한 원초적 억압이라는 무의식적 욕망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인 반면에 성경의 꿈은 미래 지향적 성격을 지닌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이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꿈 해석 이론으로 성경의 꿈을 해석할 수 없다.

셋째, 프랑소와즈 돌토는 억압과 억압된 것의 되돌아옴이라는 틀로 누가 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를 읽고 있는데, ‘무오한 증거’ 들로 가득찬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를 심리학적 틀에 종속시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녀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주님의 전능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억압된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통로로 보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께서 오신 구원 사역과 은혜를 놓친 것이 된다.

정신분석 이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틀,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꿈의 해석, 억압과 억압된 것의 되돌아옴은 모두 욕망과 관련된다. 프랑소와즈 돌토는 복음서를 프로이트와 라캉의 욕망이라는 개념으로 읽고 있는데, 그녀는 예수님이 부분적인 욕망에 갇혀 있는 인물들에게 전체적인 욕망을 불러 일으킨다는 전제 아래 복음서를 해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그녀가 프로이

트와 라캉의 욕망 개념을 끌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신학적 틀을 심리학적 구도로 대체시키는 축소 환원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음서의 중심이 욕망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녀는 욕망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성경 해석은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의 역할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그녀의 성경 해석은 수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정신분석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 오류설이 도출된다. 정신분석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읽어가는 성경신학적 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를 전제로 예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⁹⁷⁾는 해석자가 갖추어야 할 임무를 무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근본을 허무는 성경의 오류설을 전제로 하는 정신분석적 성경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적법한 성경 해석은 우선 독자적으로 되어야 한다.(…) 성경이 언어와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상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감된 무오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독자적으로 해석”⁹⁸⁾해야 한다는 개혁신주의 성경 해석과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떠나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⁹⁹⁾는 “성경의 전체 영감”(The Plenary Inspiration of the Bible)과 ‘유기적 영감’(Organic Inspiration)¹⁰⁰⁾이라는 개혁신주의 성경관에 위배되는 어떤 성경 해석 방법도 수용할 수 없다.

97) 류용렬, 위의 논문, p. 219.

98) 김지찬, <평양대부흥과 성경의 독자적 영감>, 《신학지남》 2007년 겨울호, 통권 제 293호, p. 170.

99) 류용렬, 앞의 논문, p. 224에서 John MacArthur, *Rediscovering the Expository Preaching* (Chicago: Moody, 1992), p. 102를 재인용함.

100) 정규철, <워필드의 성경무오론>, 《신학지남》 2002년 겨울호, 통권 제 273호, p. 216.